

#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가람초등학교  
위미애 교감을 만나다



운동장에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코로나19로 침잠했던 오랜 적막을 깨운다.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 온 지 어언 30여 년, 가람초등학교에서 마주한 위미애 교감의 미소는 깊은 봄만큼 따뜻하다.



##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소통의 문제다. 오랜 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됐던 터라 가정에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낯설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원만한 비대면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 상기하지 못했던 학교의 역할과 교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66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왔던 시간이 떠올리게 됐어요. 어려운 일은 없는지, 마음의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발달과업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서 더 따뜻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승이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99

가람초등학교는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기존 교육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정규 수업 외에도 책 읽어주는 어머니 활동, 온책읽기, 책의 날 행사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그녀가 만들어갈 아이들과의 행복한 동행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꿈의 씨앗을 단단하게

위미애 가람초등학교 교감은 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낸 위 교감은 존경하던 선생님의 뒤를 따라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고양시에 발령받은 후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의 힘은 온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그녀는 내실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하굣길 안전, 기초학력 향상, 학생 복지 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가람초등학교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스승의 날 우수 교원 장관 표창'도 받았다.

66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며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무척 중요해요. 아이들이 지닌 꿈의 씨앗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인 거죠.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응원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99

